

미래에서 온 통일 에너지와 함께하는  
행복한 민주시민 프로젝트

- 출품 부문 : 초등부
- 참가 교원 : 소 속 서울신구로초등학교  
성 명 최 정

# 연구보고서 요약서

주 제 : 미래에서 온 통일 에너지와 함께하는 행복한 민주시민 프로젝트

소 속 : 서울신구로초

직위·성명 : 교사 최 정

## 1. 연구의 목적

어느 날 갑자기 통일되는 날 '미래에서 온 통일 에너지'(이하는 '미통학생')는 한반도미래 교육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통일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미래 한반도 통일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적 비전을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미래성, 보편성, 특수성)을 제시해야 되는지 대한 필요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통학생'들이 맞춤형 초기 적응 활동과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자존감을 갖는 교육을 통해 편견 없이 모든 학생과 사이 좋게 지내면서 남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여,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기 적응 교육, 기초 기본 교육뿐만 아니라, '미통학생' 학생들에게 북한 이해 교육, 나라 사랑 교육, 자기 진로직업교육, 독서인문소양교육, 문화체험교육, 1:1 행복 멘토링(교과지도), 다양한 통일 관련 행사 등 전인적인 교육적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나아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기 주도적 삶을 통해 미래의 통일 한국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하는데 있다.

## 2. 연구의 대상과 기간

대상: 본교 삼정학교 학생: 2015학년도 48명, 2016학년도 28명

기간: 2015년 4월 ~ 2017년 5월

## 3. 실행내용

운영과제 1 초기 적응활동과 객관적 자신의 인식을 통한 자존감 회복

운영과제 2 다양한 교육 활동 프로그램 구안

운영과제 3 친구들과 다양한 통일 관련 행사 참여를 통한 국가관 확립을 통해

'미래에서 온 통일 에너지' 건강한 국가관을 가진 행복한 민주시민 만들기

## 4. 검증 방법 및 결과

자존감과 통일의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

본교 '미통학생'(2015학년도 48명, 2016학년도 28명),

본교 6학년 학생 46명은 '미통학생'과 비교 분석을 위한 참고 대상

## 5. 결론 및 제언

남북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관심 영역에서 사전 검사 때 보다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모든 '미통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는 반증이므로 본교와 삼정학교와의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체계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또한 '미통학생'들이 친구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즐겁게 활동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존감을 길러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이 높아져, 건강한 국가관을 가진 건전하고 행복한 민주 시민으로 자라고 있다.

'미통학생'들이 학생들이 남한 학교에 잘 적응하여 긍정적인 자존감으로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잘 누리는 것, 또 그것을 바탕으로 어른이 되어서도 남한 사회에 건강한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는 것,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면서 더불어 행복을 찾는 모습이 바로 맑고 밝은 미래의 통일 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 차 례

I. 들어가며	3
1. 미래에서 온 통일 에너지	3
2. 연구의 필요성	4
3. 연구 목적	6
II. 이론적 배경	7
1. ‘미통학생’ 이란	7
2. ‘미통학생’ 학력 부진 원인	3
3. ‘미통학생’ 학부모 이해	8
4. 삼정학교란	8
5.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9
III. 연구 추진 계획	11
1. ‘미통학생’ 실태분석 및 시사점	11
2. ‘미통학생’ 과 남한 학생 자존감과 통일 의식 설문지 비교 분석	15
3. 연구 대상 및 기간	18
4. 연구 과제	19
5. 연구 운영 단계 및 절차	20
6. 검증 계획	20
IV. 운영의 실제	21
1. 운영 과제 1의 실행	21
2. 운영 과제 2의 실행	25
3. 운영 과제 3의 실행	29
V. 운영 결과	32
VI. 결론 및 제언	35
1. 결론	35
2. 제언	36
부록1 자존감과 통일 의식 설문지(한국어)	38
부록2 자존감과 통일 의식 설문지(중국어)	39

# 표 목차

<표 1> 본 연구과제 운영의 목적	6
<표 2> 관련 선행연구	9
<표 3> 본교 미통학생 분석	11
<표 4> ‘미통학생’ 과 남한학생 자존감 비교	15
<표 5> ‘미통학생’ 과 남한학생 북한 이해 비교	16
<표 6> ‘미통학생’ 과 남한학생 통일 관심 비교	17
<표 7> ‘미통학생’ 과 남한학생 국가 대한 자긍심 비교	17
<표 8> ‘미통학생’ 과 남한학생 애국심 비교	17
<표 9> 연구 운영 단계 및 절차	20
<표 10> ‘미통학생’ 자존감 사전·사후 검사	32
<표 11> ‘미통학생’ 북한 이해 사전·사후 검사	32
<표 12> ‘미통학생’ 통일 관심 사전·사후 검사	33
<표 13> ‘미통학생’ 국가 자긍심 사전·사후 검사	33
<표 14> ‘미통학생’ 애국심 사전·사후 검사	34

### 1. 미래에서 온 통일 에너지

본교 학구에는 '미래에서 온 통일 에너지'(이하 '미통학생')를 위한 방과후 기숙학교인 '삼정학교'라는 학교가 있다. 2014년 33명, 2015년 48명 2016년 1학기 46명(2학기 28명) 학생이 본교에 재학 중이다.(2017년 2월 말 다른 곳으로 이전)

'삼정학교' 탈북 학부모들은 '미통학생'들이 남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낸다. 아이들을 '삼정학교' 기숙사에 맡긴 채 대부분의 탈북 학부모는 본교와 멀리 떨어진 여러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다. 비교적 가까운 곳에 사는 학부모는 1~2주에 한 번씩 부모 자식 간에 상봉을 하나, 더 멀리 떨어져 사는 학부모는 몇 달에 한 번, 대부분은 방학 때가 되어야 서로 상봉의 기쁨을 누린다.

이러한 이별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멀리 사는 많은 탈북 학부모들이 '미통학생'들을 본교에 보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교 어린이들은 '미통학생'에 대한 특별한 편견<sup>1)</sup>이 없어 모든 학생이 스스럼없이 사이좋게 잘 지낸다.

본교는 2017년 2월 현재 5명 중 1명인 20%의 다문화 학생(재적학생 530명 중 '미통학생' 28명, 그 외 다문화 학생 86명)이 재학하고 있다. 이에 본교에서는 특색사업 중 하나로 열린 세계시민 다문화 학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삼정학교 '미통학생'과 특별한 편견 없이 잘 지낸다.

둘째, 본교는 '미통학생'들의 초기 적응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통의 경우<sup>2)</sup> '미통학생' 중 제 3국 출생이 55% 내외, 북한 출생이 45% 내외에 이르나 본교의 '미통학생'들은 북한 출생이 28명 중 2명(7%)에 불과하고 대부분 중국 출신이다. 이런 까닭으로 본교에 처음 오는 '미통학생'들은 당장 모국어 사용이 전혀 안 되거나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되는 학생들이 많다. 또한 북한 출생 2명의 '미통학생'들도 남한의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습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1) 본교 스카우트 학생들과 '미통학생'들이 함께 1박 2일 천문캠프를 갔을 때, 교사들은 우리 '미통학생'들이 주눅이 들고 함께 못 어울릴 것을 걱정하였으나 그것은 어른들의 편견과 기우였다. 아이들은 본인의 소속과는 상관없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공동체의 친구로 그저 함께 어울려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왔다.

2) 통일부 통계(2016)

연도	구분	학생 수(명, %)			
		초	중	고	계
'15	북한출생	534	313	357	1,204
	중국 등 제3국 출생	594 (52.7%)	371 (54.2%)	14 (3.8%)	979 (44.8%)
	계	1,128	684	371	2,183
'16	북한출생	541	344	341	1,226
	중국 등 제3국 출생	683 (55.8%)	480 (58.3%)	86 (20.1%)	1,249 (50.5%)
	계	1,224	824	427	2,475

교에서는 모국어 사용이 전혀 안 되는 경우는 중국어(이중언어) 강사가, 기본적인 의사소통 정도 되는 경우는 탈북(코디네이터)교사가 초기 적응 활동을 돕고 있다. 또한 중국어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각 학급 교실 수업에 들어가 담임선생님과 함께 Co-teaching을 함으로써 '미통학생'들이 좀 더 빠른 시간에 학급 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셋째, 본교는 '미통학생'들이 남한 학교에 잘 적응하여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통학생'들의 남한 교육에 대한 적응 능력과 속도는 실로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일수록 빠르다. 1~2학년은 1년, 3~4학년은 1.5년 그리고 5~6학년은 2년 이상 걸린다. 주지 교과별로는 수학이 가장 빠르고 과학, 국어, 영어, 사회 순으로 적응한다. 우리 '미통학생'들은 일단 적응이 되면 남한의 일반 학생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고, 그 중 몇몇 아이들은 아주 우수한 성취도 평가 결과를 내기도 한다.

넷째, 본교는 '미통학생'들에게 북한 이해 교육, 나라 사랑 교육, 자기 진로 직업교육, 문화체험교육, 문예체교육, 1:1 행복 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미통학생'들은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어 심리적으로 많은 외로움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도 겪고 있어 학교 차원에서 각별한 보살핌과 생활지도, 학습지도가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본교에서는 우리 '미통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섯째, 본교와 '미통학생'들의 보급자리 '삼정학교'와의 긴밀한 협조체제이다.

북한에서 초등교육은 담임 책임 교육<sup>3)</sup>이다. 소학교 1학년에 담임교사가 배정되면 5학년까지 담임교사가 학생을 책임지고 교육하여 초급 중학교에 보낸다. 교과 과목도 100% 전과목을 담임교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아이들의 아침등교로부터 시작하여 수업, 방과 후 활동, 학교까지 담임교사가 전적으로 맡아서 진행한다. 물론 예체능을 담당하는 교사는 따로 있다. 그런 까닭으로 탈북 학부모들은 남한 학교도 동일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여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본교와 삼정학교는 긴밀한 협조로 우리 '미통학생'들과 학부모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2. 연구의 필요성

옛 서독과 동독이 서독으로 다시 통일 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남북의 통일은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독일 통일 불과 한 달 전에 서독의 총리는 공개 연설<sup>4)</sup>에서 “우리 시대에 통일은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후손에게도 통일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연설을 하였지만 그 연설이 있는 지 한 달 뒤 1990년 10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었다.

한반도의 통일도 앞으로 10~15년 안에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고 많은 미래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다.

불현듯 찾아온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남북한 통일비용<sup>5)</sup>은 천문

3) 탈북 전 북한에서 교사 생활을 했던 본교 탈북코디네이터의 교사 연수 및 인터뷰 자료 참고

4) 최윤식, '대단한 미래 2030' p221

학적 금액이 필요할 것이고, 혼란스런 이념 속에 불안한 하루하루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위기와 혼란을 잘 극복한다면, 독일이 통일 후 동서 화합과 제2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듯이 통일 한반도도 남북의 화합과 제2의 경제 도약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한반도의 통일이 필요한가?

먼저 6남북이 통일되면 분단 구조의 불안정성과 비정상성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둘째, 남북한은 언어, 문화, 역사 등을 공유한 민족으로서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이루며 살 수 있다. 셋째,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관계 속에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 남북 화합으로 인한 안보 위협의 해소는 한반도의 국가적인 신용 등급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 경제 성장의 원동력과 새로운 시장 확보를 통해 제 2의 비약적 경제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북 이산가족과 북한 이탈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통일은 꼭 필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통일되는 날 '미래에서 온 통일 에너지'(이하는 '미통학생')는 한반도 미래 교육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통일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미래 한반도 통일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적 비전을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미래성, 보편성, 특수성)을 제시해야 되는지 대한 필요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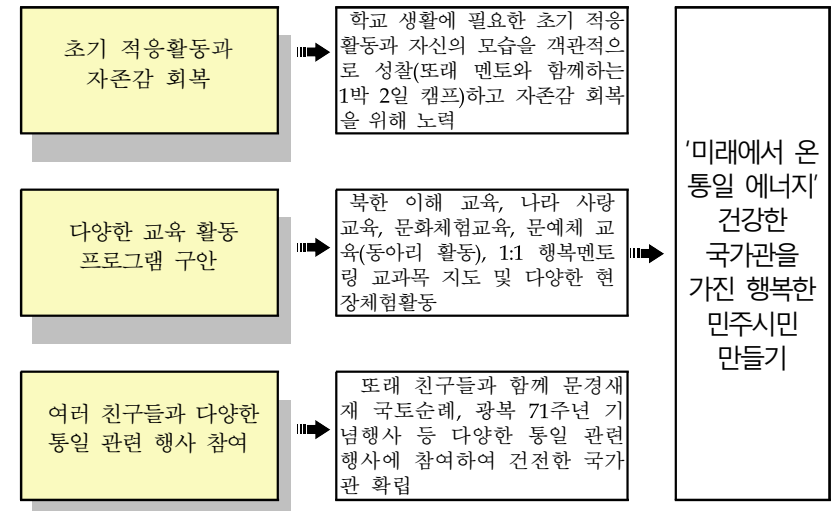
'미통학생'들이 남한 학교에 잘 적응하여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고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잘 누리는 것, 또 그것을 바탕으로 어른이 되어서도 남한 사회에 건강한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는 것,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면서 더불어 행복을 찾는 모습이 바로 맑고 밝은 미래의 통일 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 3. 연구 목적

이에 본 연구는 '미통학생'들이 맞춤형 초기 적응 활동과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자존감을 갖는 교육을 통해 편견 없이 모든 학생과 사이 좋게 지내면서 남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기 적응 교육, 기초 기본 교육뿐만 아니라, '미통학생' 학생들에게 북한 이해 교육, 나라 사랑 교육, 자기 진로직업교육, 독서인문소양교육, 문화체험교육, 1:1 행복멘토링(교과지도), 다양한 통일 관련 행사 등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나아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자기 주도적 삶을 통해 미래의 통일 한국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표-1> 본 연구과제 운영의 목적



5)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은 각각 남한 GDP의 10%, 12%이상 약 120~150조 내외

6)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p13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일 및 미래 사회 대비 남북한 초·중등학교의 통합교육과정 개발 방향, p103

### 1. '미통학생'이란

미래에서 온 통일 에너지인 '미통학생<sup>8)</sup>'은 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이 북한 출신으로 북한 혹은 제 3국에서 출생한 후 남한으로 입국하여 현재 초·중·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매년 2000명<sup>9)</sup> 이상의 '미통학생'들이 남한으로 오고 있으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남한으로 입국하는 경로는 여러 가지이다. 일단 북한에서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도강하여 중국에 간 후에 각국의 대사관, 영사관에 보호 요청을 하거나, 위조 여권으로 남한에 곧장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몽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공안과 국경수비대에 잡혀 복송되기도 하고 가족과 헤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목숨을 걸고 찾아온 탈북 부모와 '미통학생'들이 남한이란 전혀 다른 체제에 적응<sup>10)</sup>하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부 탈북자 중에는 여러 이유로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유럽이나 북미로 재이주하는 사례가 많고, '미통학생' 중에도 남한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도 포기<sup>11)</sup>(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해마다 중도 탈락률이 해마다 줄고 있다)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북한에서 나고 북한에서 공부한 '미통학생'들은 전혀 다른 교육과정<sup>12)</sup>과 교육내용을 가진 남한의 교육과정과 내용을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과 부담을 안고 있다. 더욱이 부모의 탈북과정에서 제 3국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남한에 들어온 경우에는 남한어와 남한 문화를 외국인처럼 학습해야 하는 더 큰 어려움을 안고 있다. 또한 탈북과정에서도 비교적 순조로운 학생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북한을 벗어나 2~3개국을<sup>13)</sup> 거치면서 생사를 넘는 상황이나 가족 해체를 경험하여 깊은 심리적 상처를 갖게 된 학생도 많다.

이런 까닭에 '미통학생'들이 남한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가족과의 문제와 경제적 민곤을 겪고 있어 더더욱 특별한 보살핌과 각별한 교육적 배려를 통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그리고 때로는 전문가의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

### 2. '미통학생' 학력 부진 원인<sup>14)</sup>

북한에서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소수의 학생들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교사에게 과

8) 교육개발원, 탈북중학생 진교·진업 교육 매뉴얼, p14

9) 통일부 통계(2016) 탈북학생 연도별 변화 추이 '10년 1,417명 → '11년 1,681명 → '12년 1,992명 → '13년 2,022명 → '14년 2,183명 → '15년 2,475명 → '16년 2,517명

10) 한국교육개발원, 전국 탈북학생 지도교사 연수(2014), pp14~15

11) 통일부 통계(2016) 탈북학생 중도탈락률 변화 추이 : '08년 10.8% → '09년 6.1% → '10년 4.9% → '11년 4.7% → '12년 3.3% → '13년 3.5% → '14년 2.5% → '15년 2.2% → '16년 2.1%

12) 교육부, 인천광역시, 탈북학생 매뉴얼, p14

13)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탈북청소년 입국 경로

① 북한 - 중국 - 남한 ② 북한 - 중국 - 몽골 - 남한 ③ 북한 - 중국 - 미얀마 - 태국 - 남한

④ 북한 - 중국 - 베트남 - 캄보디아 - 남한

14) 탈북 전 북한에서 교사 생활을 했던 본교 탈북코디네이터의 교사 연수 및 인터뷰 자료 참고

의 수업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많은 양의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교사가 과제를 내주는 양이 적거나 없고,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을 받고 있지만, '미통학생'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방과후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미통학생'들의 학력 부진 주요 원인이다.

- 북한, 중국의 교육과 남한 교육의 시스템과 문화적 차이
- 탈북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학업 공백기(신분 노출 등의 이유)
- 경제적 부담으로 방과후 교육(사교육 포함)의 기회 부족
- 학력 부진으로 탈북 학부모들의 개별학습지도 능력 부족

### 3. '미통학생' 학부모 이해

30대 중반에서 40대인 탈북을 한 학부모들은 1990년대 말 고난의 시기<sup>15)</sup>에 학창시절을 보내어 제대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자기 이름조차 못 쓰는 학부모도 있다.

다음은 '미통학생' 학부모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다.

- 남한의 학교교육시스템을 잘 모르며 관심도 적음
- 방과후 자녀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학습지도 능력이 부족하고, 대부분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자녀와 함께 보낼 시간도 부족함
- 북한에서처럼 전적으로 담임선생님이 4~5년 동안 학생들을 책임지고 꾸준히 지도해 줄 것이라고 믿음
- 남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는 많으나 학부모의 신상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리적 위축과 경계가 심한 경우가 많음

### 4. 삼정학교란<sup>16)</sup>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2만 9천명 시대, 다른 것을 배우고 경험한 것으로 인해 탈북 학부모는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동반 입국한 자녀는 남한 학교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모를 따라 대한민국에 온 '미통학생'은 생계형 직종에서 밤늦게 일하는 부모의 귀가를 기다리다 지쳐 쓰러져 자기도 하고, 평소에는 빈집과 놀이터, PC방에 홀로 방치되어 아동대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교육에서 배제되어 공교육마저 따라갈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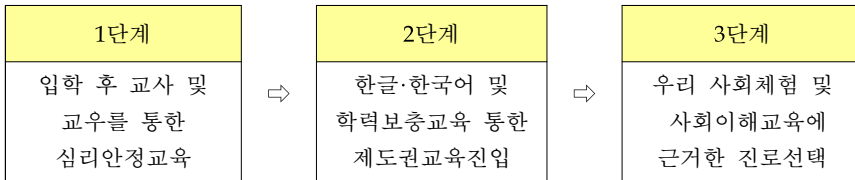
한편 중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 2세는 한글·한국어의 미숙으로 일반학교에 원만하게 진학할 수 없으며 기초학습부진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위축되어 있다.

15) [네이버 지식백과] 1990년대 계속되는 경제난과 기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사회적 이타를 막기 위해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내용

16) 삼정학교 교장님이 자료 제공

본교 학군에 있는 '삼정학교'는 북한이탈주민의 절박한 심정을 반영하여 탈북 학부모 자녀가 제도권교육으로 원만하게 진입하고 당당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10년 11월 15일 설립되었으며, 가정환경이 열악한 탈북 학부모 자녀들에게 대한민국의 학교 및 사회적응교육을 진행할 뿐 아니라, 가정교육을 병행하여 교육과 양육(남녀 기숙사 2개 운영)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다.

삼정학교는 다음의 교육단계를 거쳐 교육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 5.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표 2>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 주제	연구 내용
지은주 (2014)	두드리면 열린다! 밝은 통일 미래를 꿈꾸자!	북한의 의식주 알아보기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민족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통일 관련 놀이와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일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재미있는 통일 만화와 게임을 통해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김희진 (2014)	다문화 역량 강화를 통한 통일 의식 함양	다문화 역량 강화 관점에서 통일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다문화 역량을 길러주는 3단계 맞춤형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북한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며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
박애련 (2015)	체험 중심 S-E-S 프로그램으로 통일의 꿈 다지기	통일교육지침에서 제시한 통일교육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이 상호 조화롭게 융해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통일관, 안보역량을 키울 때 생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전한 안보관, 민족공동체이며 동시에 경계의 대상임을 인식하는 균형 있는 북한을 보는 시선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우의 (2013)	'즐거찾기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의식 함양	통일 및 안보 관련 여러 멀티미디어 영상 자료를 시청한 후 문에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봄으로써 안보·통일 의식을 고취시키고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학교순회통일강좌 등을 신청하여 지역인사 및 통일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심화된 지식을 전달하여 주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로 건전한 안보관을 가지고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	-------------------------	----------------------------------------------------------------------------------------------------------------------------------------------------------------------------------------------------------

위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학생들에게 생소한 북한의 의식주, 교육, 언어, 문화 및 풍습 등 다양한 생활 모습 알아보기를 통해 통일 교육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상의 교수-학습 활동 뿐만 아니라 통일 관련 놀이와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통일관 형성에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학생들에게 북한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넷째, 북한을 바라보는 건전한 안보관을 가지고, 북한이 민족공동체이며 동시에 경계의 대상임을 인식하는 균형 있는 시선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 Ⅲ

## 연구 추진 계획

### 1. '미통학생' 실태분석 및 시사점

가. 본 연구를 위하여 본교 '미통학생'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2015년~2017년)

<표-3> 본교 미통학생 분석

총원	성별		성취도 수준				출신국별		학령		남한 적응도			부모생활 근거지		
	남	여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부족	북한	제3국 (중국)	같은 높음	상	중	하	서울	경기 인천	지방	
48	24	24	8	10	11	19	4	44	31	17	11	18	19	7	20	21

### 나. 실태 분석 및 시사점

지금 본교에 재학 중인 '미통학생' 중 북한 태생은 4명, 그 외 44명의 대부분은 중국 출신이다.

중국 출신 44명 중 조선족 학교를 다니다 온 15명처럼 모국어 사용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모가 '미통학생'의 모국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와 어느 정도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본교에 전입한 경우, 이미 어느 정도 남한 학교 교육의 적응 과정을 거치고 본교에 온 경우는 비교적 빨리 학교에 적응을 하였다. 반면 한족 학교만 다녔거나 도피 생활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남한의 다른 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초기 적응 활동에 실패한 경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탈북<sup>17)</sup>으로 인한 부모에 대한 반감, 그리고 남한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모국어 사용조차 어려워 초기 적응 과정에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비:** 2013년, 2014년에는 여학생수가 일방적으로 많았으나 2015년, 2016년 2017년에는 성비 차이가 없음

○ **성취도 수준:** 모국어 사용 정도, 학교생활 적응 정도, 반 친구들과의 의사소통능력, 과목별 학업 성취도 수준을 고려하여 4단계로 분류하였다.

부족 【약 40%】	- 모국어 사용이 어려워 한글 공부를 첫걸음부터 해야 하는 학생 - 규칙적인 학교생활에 익숙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남한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본 생활 적응이 안 된 학생
보통 【약 23%】	- 모국어를 읽고 쓰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교사(담임, 교과)의 도움을 받으면, 반 학생들과 어울려 수업을 이해하고 따라 갈 수 있는 수준의 학생
잘함 【약 21%】	- 모든 교과목과 교육과정에 잘 적응하여 원만한 의사소통으로 반의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학생(본교에서 '미통학생'에게 기대하는 목표 수준)
매우 잘함 【약 16%】	- 반 아이들과 교우 관계가 좋고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특정한 두 과목(많은 경우 사회 과목을 어려워 함)을 제외하고 전 과목 전 영역에서 고루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으로 남한의 학교생활에 완전하게 적응하여 자신의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한 자존감이 높은 학생

○ **출신국:** 일반적인 경우 '미통학생'중 제 3국 출생이 55% 내외, 북한 출생이 45% 내외에 이르나 본교의 '미통학생'들은 북한 출생이 48명 중 4명(8%)에 불과하고 대부분 중국 출신이다.

○ **학령:** 본교 '미통학생'중 65%는 같은 학령이다. 1살 정도 많은 25%의 학생들은 큰 문제없이 지내나, 또래보다 2살 정도 많은 학생의 경우 초기에는 호칭의 문제(형이나 언니 호칭을 원하는 경우도 있음)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같은 학년의 또래와 융화되어 잘 지낸다.

같은	【약 65%】 48명 중 31명은 남한 학생과 같은 학령 (1학년: 만 7세, 2학년: 만 8세...)임
높음	1년 【약 25%】 같은 학년의 또래보다 1살 많은 경우는 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6학년에 5명, 모두 12명
	2년 【약 10%】 같은 학년의 또래보다 2살 많은 경우는 4학년에 3명, 5학년 1명, 6학년 1명

○ **남한 사회 적응 정도:** 자존감이 낮거나 높은 학생, 모국어(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수준 정도, 본교에 입학이나 전입하기 전의 학력, 남한 사회와 교육과정에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의지 정도 등으로 3단계로 분류하였다.

17) 통일부(2013), 탈북 학생 탈북 동기: '가족(부모)을 따라서 탈북 했다'는 답변이 72.4, '식량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24.2%, '자유를 찾아서' 19.6%, '가족을 찾거나 결함을 위해서'로 16%, 가장 낮은 답변이기는 하지만 '북한 체제가 싫어서'라는 답변도 9.1% (복수 응답)



하 【약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존감이 많이 부족한 학생</li> <li>- 남한에 정착하기 위한 탈북과정에서 장기간 불규칙적으로 숨어 지내는 생활을 하다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남한 학교에 전입이나 입학할 경우 규칙적인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연필을 잡지도 못하고 선이나 모양, 수, 색깔조차도 인식 못하는 경우의 학생도 있음)</li> <li>- 모국어(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전혀 못하는 경우의 학생</li> <li>-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탈북으로 인한 부모에 대한 반감과 남한 사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학생</li> </ul>
중 【약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li> <li>- 적어도 1년 이상 남한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을 다닌 경험이 있는 학생</li> <li>- 중국에서 조선족 학교를 다니다가 온 학생 중 남한 교육과정에 3~6개월 동안 잘 적응한 학생</li> <li>- 모국어(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가능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없는 학생</li> <li>- 본교가 아닌 다른 남한 학교를 다니면서 기본적인 적응활동이 되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li> <li>- 다른 탈북 학부모와는 달리 자녀(학생 본인 포함)의 남한 학교생활 적응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li> </ul>
상 【약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스로 사랑 받고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강점을 잘 알고 있는 자존감이 높은 학생</li> <li>- 본교 전입이나 입학한지 2년 이상 된 학생 중 3~5학년 학생</li> <li>- 적어도 2년이상 남한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을 다닌 경험이 있는 1~2학년 학생</li> <li>- 모든 과목에서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li> <li>- 모국어(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교사와 또래 학생 간에 의사소통을 활발하고 능숙하게 하는 학생</li> <li>-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학생</li> <li>-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학생</li> </ul>

○ '미통학생' 학생들의 부모님 근거지

서울 【약 14%】	- 부모의 근거지가 서울에 있어 본교와 가까운 경우에는 1~2주에 한번, 먼 경우 1달에 한 번 부모와 상봉
경기 인천 【약 42%】	- 대부분 1~2달에 한 번 상봉하나, 비교적 먼 지역일 경우 방학이나 명절 때만 상봉을 하는 경우
지방 【약 44%】	- 부모의 근거지가 각 지방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여름, 겨울방학, 추석 등 특별한 경우에만 서로 상봉한다. 그러나 몇 명 일성 학부모들의 경우 몇 주에 한 번씩 상봉

○ '미통학생'의 학교생활 및 방과후 활동

'미통학생' 중 성취도 수준이 '보통' 이상이거나 적응 정도가 '중' 이상인 경우는 남한 학생들과 똑같은 교실 수업을 받는다. 그러나 모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이중언어강사의 '한글 첫 걸음' '수 세기 가르기'부터 수준별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모국어가 되고 수리적 사고가 가능하면 탈북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남한 학교 기본 교육과정과 도구 교과 중심으로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각 반에서 담임교사가 수요 일마다 반별로 1~2명의 모든 '미통학생'을 대상으로 1:1 행복멘토링<sup>18)</sup>을 하고 있다. 평상시 학업성취도가 부족한 학생은 상담과 부진아 지도를 하고 있고, 모든 '미통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다.

방과후에는 탈북 출신 교사의 도움으로 삼정학교의 교육과정 일정에 따라 교과별 복습 및 음악, 과학, 체육, 국어, 외국어 수업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토요일의 경우 삼정학교와 본교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영어캠프와 '미통학생'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장소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본교	교과 교육 탈북코디네이터, 이중언어강사, 중국어 교사 Co - Teaching						본교 삼정 협의 후  현장 체험 학습 운영	개인 생활 및 가족과 의 상봉
	상담 및 부진아 수업	동아리 활동	담임교사와 1:1 행복멘토링	상담 및 부진아 수업	상담 및 부진아 수업			
방과후 삼정 학교	교과별 복습(탈북 출신 교사 지도)							
	아코 디언	로봇 조립	라인댄 스(합창)	영어 (모국어)	태권도			

18) 본교의 28명의 담임교사가 전원 참석하여 수요일마다 '미통학생'을 위한 1:1 행복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활동, 교과지도(성취도 수준이 중 미만인 경우는 도구과목 지도, 중 이상은 주지과목 지도), 각종 체험 활동, 생활지도등을 하고 있음.

○ '미통학생'들의 기타 특징(심리와 성품, 언어 습관)

- 남한 학생들에 비해 자존감이 조금 낮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남한 학생들과 동등해지고 있음
- 북한 출신 학생들은 남한 사회에 대한 불신과 막연한 불안감이 남아 있음
- 교사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이 강하며, 교사의 지시에 잘 따름
- 교사의 작은 애정도 크게 반응하며 스스로 없이 다가와 포용을 함
- 정직하고 착하며, 어른에 대한 예의가 바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며 질서와 순서를 잘 지킴
- 부모와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고 성숙하며, 스스로 자기 주변을 잘 정돈하고 책임감이 강함
- 처음에는 칭찬에 익숙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칭찬 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함
- 대부분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거부하거나 싫어한다. 스스로 자랑하는 것 외에는 모른 척 하는 것이 좋을 때가 많음

- '미통학생' 사이에서는 아직 모국어가 부족한 학생들이 많아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친구들끼리도 중국어를 주로 쓰는 학생이 많다. 평상시에 중국어와 모국어를 혼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2. '미통학생'과 남한학생 자존감과 다양한 의식 설문지 비교 분석

'미통학생' 3~6학년 학생(28명)과 본교 6학년 학생(46명)의 자존감과 다양한 의식 설문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미통학생 N=28명, 6학년 학생 N=46명)

○ '미통학생'과 남한학생 자존감 비교

<표-4> '미통학생'과 남한학생 자존감 비교

영역	문항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잘 모름	
		미통 학생	6학년	미통 학생	6학년	미통 학생	6학년	미통 학생	6학년
자존감	나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我得到着很多的愛。	46%	61%	43%	37%	4%	2%	7%	0
	나는 노력하면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다. 我努力就可以做好任何事情。	43%	46%	46%	54%	4%	0	7%	0
	나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我的优点很多。	32%	54%	54%	42%	7%	2%	7%	2%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我是幸福的人。	61%	63%	39%	21%	0	9%	0	7%
[시사점]									
- '노력하면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다'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질문에 '미통학생'과									

일반 학생이 비슷한 응답이 나왔다.

-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라는 질문에 '미통학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반응이 적어 '미통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프로그램 구안이 필요하다.

○ '미통학생'과 남한학생 북한 이해 비교

<표-5> '미통학생'과 남한학생 북한 이해 비교

영역	문항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잘 모름	
		미통 학생	6학년	미통 학생	6학년	미통 학생	6학년	미통 학생	6학년
북한 이해	북한 친구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알고 있다. 我了解对北韩朋友们的学校生活。	61%	31%	14%	50%	18%	17%	7%	2%
	북한의 음식이나 언어를 알고 있다. 我知道北韩的饮食和语言。	36%	26%	29%	42%	21%	17%	14%	15%
	북한도 우리와 뿌리가 같은 민족이다. 北韩是和我们同一民族的根。	57%	63%	29%	30%	14%	7%	0	0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사람을 돕고 싶다. 我想帮助在经济上有困难的北韩人。	64%	55%	28%	41%	4%	4%	4%	0
[시사점]									
- 북한의 학교생활, 음식과 언어에 대해 '미통학생'들이 일반학생 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탈북 학부모의 영향이 클 것으로 짐작된다.									
- '북한도 우리와 뿌리가 같은 민족이다.'라는 질문에 오히려 남한 학생이 더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의외이다.									
- 일반 학생이 북한 친구들의 학교생활, 음식, 언어 등에 이해가 부족하므로 학교에서 북한 이해 교육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미통학생'과 남한학생 통일 관심 비교

<표-6> '미통학생'과 남한학생 통일 관심 비교

영역	문항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잘 모름	
		미통 학생	6학년	미통 학생	6학년	미통 학생	6학년	미통 학생	6학년
통일 관심	남북은 꼭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 南北韩必须要和平统一。	64%	83%	21%	15%	11%	2%	4%	0
	통일 되면 북한을 꼭 한번 가고 싶다. 我想统一后去一次北韩。	53%	70%	29%	21%	11%	7%	7%	2%
	국제 경기에 남북한이 한 팀으로 나갔으면 좋을 것 같다. 我认为在国际竞技场中南北韩成为一组参加较好。	64%	66%	18%	21%	11%	11%	7%	2%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72%	72%	21%	21%	0	5%	7	2%

	如果南北统一, 我国将成为生活条件更好的国家。								
[시사점]									
- '평화 통일 해야 한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 꼭 가고 싶다'에 대한 응답은 남한 친구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 통일 관심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남북 모든 학생들이 통일에 관심과 열망이 높다는 반증이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몸과 마음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키겠다. 长大后, 在我们国家面临困难时, 我会全心全力拥护我们国家。								
[시사점]									
-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라는 질문에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으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질문은 긍정적 응답이 낮아 애국심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 '미통학생'과 남한학생 국가에 대한 자긍심 비교

<표-7> '미통학생'과 남한학생 국가에 대한 자긍심 비교

영역	문항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잘 모름	
		미통학생	6학년	미통학생	6학년	미통학생	6학년	미통학생	6학년
국가 자긍심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한다. 三一節、光復節、韓文節等國慶節里懸挂太極旗。	35%	41%	50%	46%	4%	13%	11%	0
	애국가를 부르거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 가슴이 뭉클하다. 唱國歌, 或對國旗宣誓的時候, 心里很是激動澎湃。	32%	20%	36%	56%	14%	17%	18%	7%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과 6.25전쟁 등에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존경한다. 很是尊敬為了國家在獨立運動及6, 25戰爭中犧牲的人們。	64%	79%	21%	21%	4%	0	11%	0
[시사점]									
- '태극기를 게양한다.'라는 문항과 '국기에 맹세를 하는 것 애국가를 부를 때의 문항에 아주 낮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기와 애국가에 자긍심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이 필요하다.									
-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으로 애국지사화 태극기를 매칭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미통학생'과 남한학생 애국심 비교

<표-8> '미통학생'과 남한학생 애국심 비교

영역	문항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잘 모름	
		미통학생	6학년	미통학생	6학년	미통학생	6학년	미통학생	6학년
애국심	독도가 자기 나라 땅이라 우기는 일본에 대해 자신 있게 우리나라 땅이라 주장할 수 있다. 可以對着執意說獨島是自己領土的日本, 理直氣壯地證明獨島是我們的領土。	64%	74%	11%	26%	11%	0	14%	0
	커서 어른이 되면 우리나라가	53%	63%	29%	35%	4%	2%	14%	0

3. 연구 대상 및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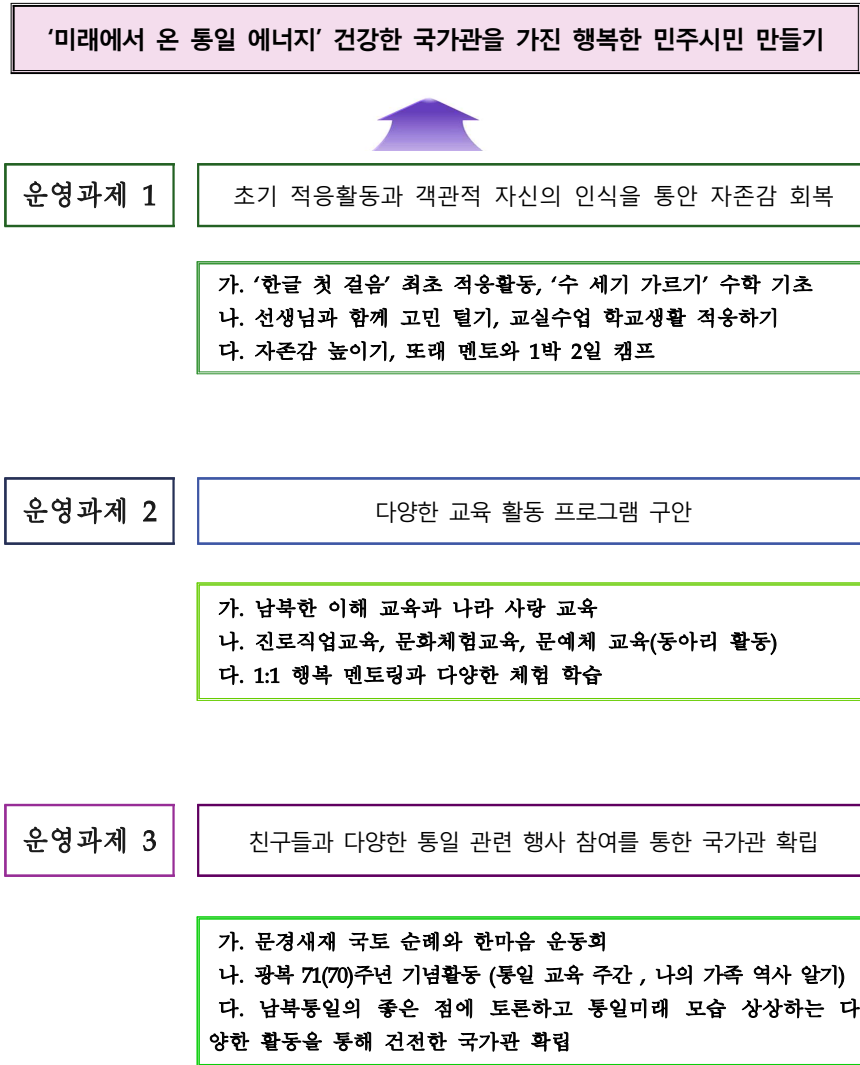
가. 실천 대상 : 본교 '미통학생'(2015학년도 48명, 2016학년도 28명 중 3~6학년 28명)

본교 6학년 학생 46명은 '미통학생'과 비교 분석을 위한 참고 대상

나. 실천 기간 : 2015년 4월 ~ 2017년 5월

#### 4. 연구 과제

지금까지 이루어진 담임교사, 탈북코디네이터, 이중언어강사, Co-teaching 교사, 삼정학교 교장 및 교사의 인터뷰와 문헌의 고찰 및 학생들의 실태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의 운영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5. 연구 운영 단계 및 절차

<표-9> 연구 운영 단계 및 절차

단 계	절 차	추진 내용 및 방법	2015~2017학년도									
			1	2	3	4	5	6	7	8		
연구의 설계	기초조사	· 학생의 실태분석	○									
	연구주제설정	· 연구주제 설정	○									
		·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									
	문헌연구	· 자료 분석	○									
		계획서 작성	· 연구계획서 작성	○								
			· 세부실천계획 수립	○	○	○						
연구의 실행	연구 실천	· 실천목표 1,2,3 실행		○	○	○	○	○	○	○	○	
		· 연구결과 검증		○						○	○	
검증및 보고서 작성	검증 평가	· 검증 결과의 평가									○	
		· 결과 검증 및 분석									○	
	보고서작성	· 연구보고서 작성									○	

#### 6. 검증 계획

본 연구는 ‘미통학생’ 3~6학년 학생(28명)대상으로 하였으며 자존감과 통일의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미통학생’	O <sub>1</sub>	X <sub>1</sub>	O <sub>2</sub>
--------	----------------	----------------	----------------

O<sub>1</sub> : 사전 자존감과 통일의식 검사, O<sub>2</sub> : 사후 자존감과 통일의식 검사

X<sub>1</sub> : 운영과제 1, 2, 3

## IV

## 운영의 실제

### 운영과제 1

초기 적응활동과 객관적 자신의 인식을 통한 자존감 회복

가. '한글 첫 걸음' 모국어 교육, '수 세기 가르기' 수학 기초  
나. 선생님과 함께 고민 털기, 교실수업 학교생활 적응하기  
다. 자존감 높이기, 또래 멘토와 1박 2일 캠프

#### 1. 선생님과 우리말을 배워요: 최초 적응 활동(이중언어강사와 담임교사)

##### 가. 목적

○ 탈북 과정에서 장기간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중국에 체류하면서 중국 학교를 다녀 모국어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던 '미통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초의 학교생활 적응 활동을 실시함

##### 나. 운영 내용

- 모국어 한글 공부 책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육
- 교실 수업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익히기
- 같은 모양 찾기, 선 긋기, 선 그리기, 여러 모양 그리기, 색칠하기
- 수 세기, 수 가르기, 손가락을 사용하여 작은 수 더하고 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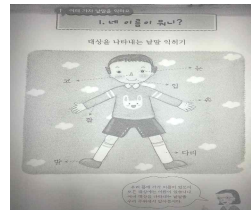
##### 다. 관련 사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습지

#### 2. 학교에 가면 좋아요: 학교생활 적응활동(탈북코디네이터와 담임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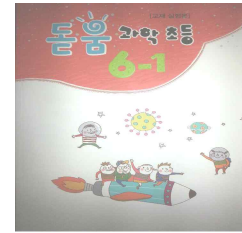
##### 가. 목적

○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되나, 남한의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기초적인 교과 교육 및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적응 활동을 실시함

##### 나. 운영 내용

- '미통학생'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돋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활용
- 한글 책을 읽고 쓰고 중요한 내용 말하기
- 선생님의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듣고 설명하기
- 다양한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반 친구들과 함께 하며 즐겁게 참여하기
- 학급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알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 다. 관련 사진



학습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 3. 선생님이 좋아요: 교실수업 적응활동(담임교사와 중국어 강사 co-teaching )

##### 가. 목적

○ 한국어 수업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미통학생'에 대한 담임 및 교과 교사의 수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미통학생'의 수업 참여 및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게 함

##### 나. 운영 내용

- 중국어 강사가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 수업에 투입되어 '미통학생'들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즐겁게 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 교과 과목에서 부족한 부분 1:1 개인 지도
- 일반 학생이 이중언어교실(중국어)에서 중국어에 대한 자연스런 노출을 통해 일반 학생 중국어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미통학생' '다문화 학생'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과의 통합 교육 제공

**다. 관련 사진**



**4. 나는 행복해요: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담임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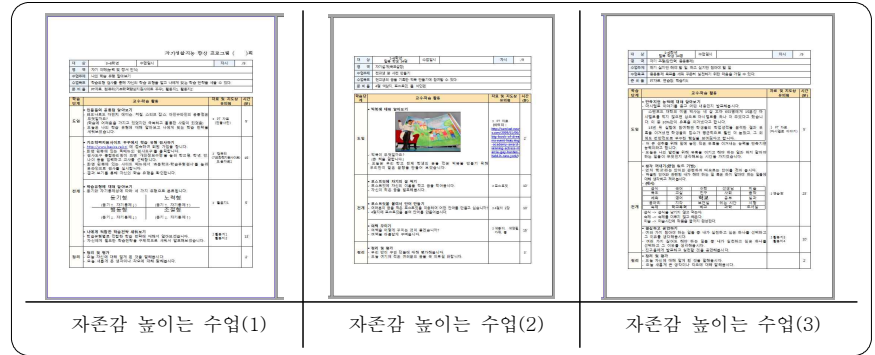
**가. 목적**

- '미통학생'들이 부모와 가족, 여러 선생님 그리고 학교 친구들 함께 생활하는 지속 사 친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강점을 키워 무슨 일든 잘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 줌

**나. 운영 내용**

- '미통학생'들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
- '미통학생'들도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줌
- '미통학생'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면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담임교사가 제량 시간을 활용하여 자존감을 높이는 수업 프로그램 적용

**다. 관련 사진**



**5. 친구와 함께 하면 더 행복해요: 또래 멘토와 1박 2일 캠프(담임교사)**

**가. 목적**

- '미통학생'(4~6학년 23명), 또래 멘토 학생'(4~6학년 23명), 일반 학생 14명이 1박 2일 동안 함께하며 올바른 자아형성과 미래의 밑바탕이 될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나. 운영 내용**

- DiSc 카드(48장)를 활용하여 나의 유형 찾아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기
- 10명 내외의 한 팀이 손을 잡고 주어진 미션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모습과 배려 배우기
- 찾아가는 진로체험 1(건축가), 찾아가는 진로체험 2(은행원)
- 마술사가 되어 친구들 앞에서 멋진 공연해보기

**다. 관련 사진**





## 운영과제 2

### 다양한 교육 활동 프로그램 구안

- 가. 북한 이해 교육과 나라 사랑 교육
- 나. 진로직업교육, 문화체험교육, 문예체 교육(동아리 활동)
- 다. 1:1 행복 멘토링과 다양한 체험 학습

#### 1.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북한 이해 교육(담임교사와 탈북코디네이터)

##### 가. 목적

○ 북한의 교육제도와 교육과정, 소학교 학생의 생활모습, 북한을 대표하는 음식 및 우리와의 언어 차이를 알아보면서, 북한은 우리와 뿌리를 함께하는 민족임을 알고, 서로 돕고 지내는 마음을 갖게 함

##### 나. 운영 내용

- 북한 소학교 친구들의 학교생활 모습을 책과 영상으로 보고 토론하기
- 북한 각 지역 자랑거리 음식을 알아보고 직접 만들어 먹어보기
- 북한도 우리와 같은 뿌리를 가진 한민족임을 알고 어려운 경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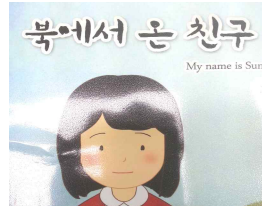
##### 다. 관련 사진



구름빵 백령도 여행



북한 음식 만들어 먹기



북에서 온 친구 순애

#### 2.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요: 나라 사랑 교육(담임교사)

##### 가. 목적

○ 국경일 날 태극기를 게양하고, 애국가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면서 조국의 소중함을 느끼며 목숨 걸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켰던 애국선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함

##### 나. 운영 내용

- 삼일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의 의미를 알고 태극기 그리기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 갖기
- 나라를 위해 독립 운동과 6.25전쟁 등에서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감사 편지 쓰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소중함 알기

##### 다. 관련 사진



태극기 그리기



한글날 계기 교육 자료



광복절 계기 교육

#### 3.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로직업교육(담임교사)

##### 가. 목적

○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미통학생'들의 직업적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남한 사회의 환경 속에서 그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보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 나. 운영 내용



- 구로진로직업센터에서 운영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미통학생'들이 바리스타가 하는 일을 배우고 직접 커피를 만들어 마셔보는 체험
- 키자니아 직업체험을 통해 '미통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체험을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
- 서울남부법원을 방문하여 실제 형사 재판하는 장면을 보기, 법원에서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이 하는 일 알기, 판사의 직업진로교육을 듣고 질문하기 등의 경험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다. 관련 사진**



**4. 우리나라는 거리가 많아요: 문화체험교육(담임교사)**

**가. 목적**

- 문화 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미통학생'들을 대상으로 63빌딩 및 유람선 관광, 뮤지컬 관람을 통해 관광 및 예술 분야에 대한 간접적인 진로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

**나. 운영 내용**

- 63빌딩에서 4D 영화도 보고, 수족관도 관람하고 맛있는 뷔페도 먹는 경험
-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아름다운 전망과 서울의 발전 모습을 감상
- 뮤지컬 관람 및 패밀리 레스토랑 체험을 실시, 이를 통해 공연 분야와 외식 분야에 대한 간접적인 진로체험의 기회

**다. 관련 사진**



**5. 담임선생님과 재미있게 공부해요. 1:1 행복 멘토링(담임교사)**

**가. 목적**

- 본교 28명의 모든 담임교사가 참여하여, '미통학생'들이 남한의 교육환경에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구교과와 주지교과 중심의 보충 수업을 하며, 1:1 개별적으로 수준별 학습으로 진행

**나. 운영 내용**

- 담임교사와 매주 수요일 방과후 2시간 동안 1:1 행복 멘토링 진행
- 상담활동과 간단한 게임 규칙 알고 게임하기 및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주지 교과 중심의 보충 수업 진행
- '미통학생' 발달 단계와 성취도 수준에 맞춘 수준별 교육 실시

**다. 관련 사진**



### 운영과제 3

### 친구들과 다양한 통일 관련 행사 참여를 통한 국가관 확립

- 가. 문경새재 국토 순례와 한마음 운동회
- 나. 광복 71주년 기념활동 (통일 교육 주간, 나의 가족 역사 알기)
- 다. 남북통일의 좋은 점에 토론하고 통일미래 모습 상상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전한 국가관 확립

#### 1.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문경새재 국토 순례, 운동회(담임교사)

##### 가. 목적

- 구로구에서 주최하는 국토 순례에 우리 '미통학생'들이 참여하여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고,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학생들의 체력향상과 건전한 정신의 함양, 질서 있는 집단생활을 통한 협동심 함양과 도전의식을 길러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나. 운영 내용

- 구로고등학교, 영림중학교, 본교 4~6학년 '미통학생' 22명, 학부모, 본교 일반 학생이 참여함.
- 문경새재 옛길을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우리나라 국토의 소중함을 느낌
- 반이나 학년 친구들과 함께 무용, 게임, 달리기, 체조, 계주 등을 신나게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냄

##### 다. 관련 사진



문경새재 국토 순례

한마음 운동회 1

한마음 운동회 2

#### 2. 우리나라를 사랑해요: 제 5회 통일 교육 주간(담임교사)

##### 가.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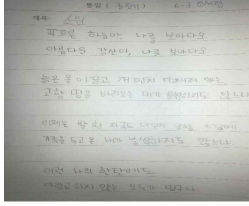
- '통일교육주간'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통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으로 통일 미래 세대로서의 역량 함양
- 광복 71년, 분단 71년의 의미를 되새겨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미래지향적 통일 교육 실시

##### 나. 운영 내용


-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갖고, 북한을 바르게 알며, 북한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다양한 작품 활동하기
- 우리는 하나의 민족임을 알고 통일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통일그리기, 글짓기, 만화그리기, 북한 어린이에게 편지 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함

##### 다. 관련 사진


순	대회명	내용	수상
1	통일 그리기	·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	반별 우수 1명, 장려 2명(학년 최우수 1명)
2	통일 글짓기	· 북한 바르게 알기	반별 우수 1명, 장려 2명(학년 최우수 1명)
3	통일 만화 그리기	· 북한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마음	반별 우수 1명, 장려 2명(학년 최우수 1명)
4	통일 편지 쓰기	· 우리는 하나의 민족임을 알기 · 통일의 긍정적인 효과	반별 우수 1명, 장려 2명(학년 최우수 1명)
5	통일교육원 통일상 공모전	<a href="http://www.uniedu.go.kr/uniedu/main/main.do">http://www.uniedu.go.kr/uniedu/main/main.do</a>	붙임 자료 참고
	관련	· 재방시간 활용	



통일 관련 행사 계획



통일 글짓기



통일 그리기

#### 3.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알았어요: 나의 가족 역사 알기(담임교사)

##### 가. 목적

- 광복 71년을 기념하여 조부모님 또는 부모님과 친척으로부터 우리 가족 역사 이야기를 듣고 이를 주제로 작품을 제작
- 단절된 세대 간, 가족 간을 통합하여 가족 근현대사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를 부여함으로 건전한 역사인식 함양 및 미래지향적 인재 육성

##### 나. 운영 내용

- 조부모님 또는 부모님과 친척으로부터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족의 근현대사 바로 알기
- 우리 가족 역사 한글 문서로 작성하기, 신문 만들기, ppt 만들기

#### 다. 관련 사진

**3. 주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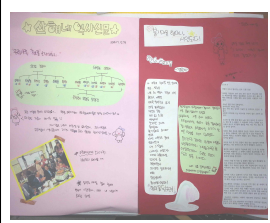
- 대상: 우리학교 4~6학년
- 주제: 조부모님 또는 부모님과 친척으로부터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족 역사의 개발
- 분야

교과목	A4 1~2면 내외
제작인원	A3 용지(발자취)에 용지 1장용 등 개인 없이 자유롭게 제작
평가	평가방법: 작품 내용 * 단문 작성

④ 사진(각 분야) 1학년별, 반별로


상등	반원	시상	태고
최우수	1명	상장	학년별 1명
우수	4~5명	상장	반별 1명
장려	8~10명	상장	반별 2명

학년별 최우수 작품 중 1개를 선정하여 교육청 대회에 추천한다.



우리 가족 역사 행사 계획

**1. 최초의 시조의 탄생**



우리 가족 역사 ppt

#### 4. 꼭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통일 한국 모습 상상하기(담임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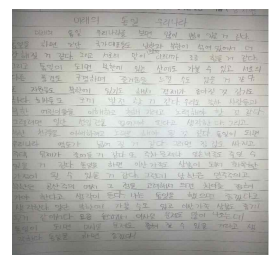
##### 가. 목적

- 통일이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발표함
- 통일이 되면 남북화합으로 인해 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고,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며, 북한의 자원과 인력, 남한의 기술과 투자가 만나면 통일 한국은 제 2의 도약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줌

##### 나. 운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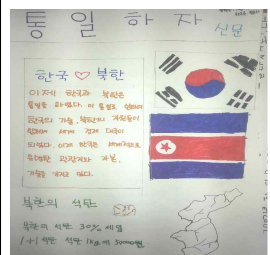
- 통일 강연을 듣고 통일이 왜 필요하고 좋은 것인지 의논하기
- 통일의 필요성을 토의하고 신문, 만화, 글로 써 보기

#### 다.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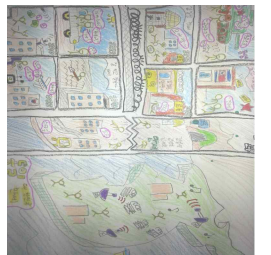


통일 미래 우리나라

**통일하자** 신문



통일 신문



통일 만화그리기

## V

## 운영의 결과

‘미통학생’ 3~6학년 학생(28명)의 자존감과 다양한 의식 설문지 응답 결과를 사전(3월), 사후(10월)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미통학생 N=28명)

#### ○ ‘미통학생’의 자존감 사전·사후 검사

<표-10> ‘미통학생’의 자존감 사전·사후 검사

영역	문항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잘 모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자존감	나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我在得到着很多的爱。	46%	61%	43%	32%	4%	0	7%	7%
	나는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我努力就可以做好任何事情。	43%	50%	46%	42%	4%	4%	7%	4%
	나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我的优点很多。	32%	39%	54%	46%	7%	11%	7%	4%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我是幸福的人。	61%	71%	39%	29%	0	0	0	0
[시사점]									
- 사전 검사에는 ‘미통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자존감이 약간 낮았으나 사후 검사에서 작은 차이이지만 오히려 사전 검사의 일반 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다.									
- 삼정학교 교사, 탈북코디네이터, 이중언어강사, co-teaching교사, 특히 담임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미통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을 갖고 성실히 따라준 결과 자존감이 높아지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었다.									

#### ○ ‘미통학생’의 북한 이해 사전·사후 검사

<표-11> ‘미통학생’의 북한 이해 사전·사후 검사

영역	문항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잘 모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북한 이해	북한 친구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알고 있다. 我了解对北韩朋友们的学校生活。	61%	64%	14%	18%	18%	14%	7%	4%
	북한의 음식이나 언어 알고 있다. 我知道北韩的饮食和语言。	36%	39%	29%	32%	21%	22%	14%	7%
	북한도 우리와 뿌리가 같은 민족이다. 北韩是和我们同一民族的根。	57%	60%	29%	29%	14%	11%	0	0%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사람을 돕고 싶다. 我想帮助在经济上有困难的北韩人。	64%	68%	28%	21%	4%	7%	4%	4%
[시사점]									
- 북한 이해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는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									

- '미통학생'들의 남한 학교 적응 활동에 중점을 두면서 '미통학생'의 고향이거나 부모님의 고향인 북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

○ '미통학생'의 통일 관심 사전·사후 검사

<표-12> '미통학생'의 통일 관심 사전·사후 검사

영역	문항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잘 모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통일 관심	남북은 꼭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 南北韩必须要和平统一。	64%	78%	21%	14%	11%	4%	4%	4%
	통일 되면 북한을 꼭 한번 가고 싶다. 我想统一后去一次北韩。	53%	64%	29%	18%	11%	11%	7%	7%
	국제 경기에 남북한이 한 팀으로 나갔으면 좋을 것 같다. 我认为在国际竞赛场中南北韩成为一组参加较好。	64%	68%	18%	24%	11%	4%	7%	4%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如果南北统一, 我国将成为生活条件更好的国家。	72%	78%	21%	18%	0	0	7%	4%
[시사점] - '남북이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 통일 되면 북한을 가고 싶다.'에 대한 사전검사보다 사후 검사가 더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다. - 통일 관심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남북 모든 학생들이 통일에 관심과 열망이 높다는 반증이므로 다가올 통일 한국의 미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 '미통학생'의 국가 자긍심 사전·사후 검사

<표-13> '미통학생'의 국가 자긍심 사전·사후 검사

영역	문항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잘 모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국가 자긍심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한다. 三一节、光复节、韩文节等国庆节里悬挂太极旗。	35%	60%	50%	29%	4%	4%	11%	7%
	애국가를 부르거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 가슴이 뭉클하다. 唱国歌, 或对国旗宣誓的时候, 心里很激动澎湃。	32%	50%	36%	35%	14%	4%	18%	11%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과 6.25전쟁 등에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존경한다. 很是尊敬为了国家在独立运动及6, 25战争中牺牲的人们。	64%	78%	21%	15%	4%	0	11%	7%

[시사점]

- '태극기를 게양 한다', '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것, 애국가를 부를 때' 와 같은 문항에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사의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왔으며 오히려 사전 검사 일반 학생(태극기 41%, 애국가 20%)들보다 더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왔다.  
- '미통학생'들이 친구들과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자기 주도적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 길러 건전하고 행복한 민주 시민으로 자라고 있다.

○ '미통학생'의 애국심 사전·사후 검사

<표-14> '미통학생'의 애국심 사전·사후 검사

영역	문항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잘 모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애국심	독도가 자기 나라 땅이라 우기는 일본에 대해 자신 있게 우리나라 땅이라 주장할 수 있다. 可以对着执意说独岛是自己领土的日本, 理直气壮地证明独岛是我国的领土。	64%	71%	11%	18%	11%	7%	14%	4%
	커서 어른이 되면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몸과 마음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키겠다. 长大成人后, 在我们国家面临困难时, 我会全心全力拥护我们国家。	53%	68%	29%	24%	4%	4%	14%	4%
[시사점] -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사에 높게 나왔으며, 사전 검사 일반 학생(독도 74%, 몸과 마음 바치기 63%)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율이 높아졌다. - '미통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우리나라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 1.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어느 날 갑자기 통일 되는 날 '미래에서 온 통일 에너지'(이하 '미통학생')는 한반도미래 교육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통일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미래 한반도 통일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적 비전을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미래성, 보편성, 특수성)을 제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삼정학교 교사, 탈북코디네이터, 이중언어강사, co-teaching교사, 특히 담임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미통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을 갖고 성실히 따라 주었다. 그 결과 '미통학생'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남북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관심 영역에서 사전 검사 때 보다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모든 '미통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는 반증이므로 본교와 삼정학교와의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체제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넷째, '미통학생'들이 친구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즐겁게 활동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존감을 길러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이 높아져, 건강한 국가관을 가진 건전하고 행복한 민주 시민으로 자라고 있다.

## 2. 제언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통학생'들이 맞춤형 초기 적응 활동과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자존감을 갖는 교육을 통해 본교 학생들과 서로 특별한 편견 없이 사이좋게 지내면서 남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미통학생'들이 남한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력과 재정 지원으로 삼정학교와 같은 기숙형 학교가 많이 설립되어야 하고 일반 학교와 긴밀하게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미통학생'들도 초기 적응활동만 잘하면 짧은 시간 안에(1~3년) 남한의 다른 학생과 의사소통하며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몇몇 아이들은 남한의 학교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여 반 아이들과 돈독한 교우 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이들 중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특정한 한 두 과목(많은 경우 사회 과목을 어려워 함)을 제외하고 전 과목 전 영역에서 매우 우수한 성취 수준을 달성한 학생도 많다. 그러므로 '미통학생'들의 초기 적응을 위한 과감한 교육적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미통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이 강하여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른다. 또한 정직하고 착하며 어른에 대한 예의가 바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 그리고

부모와 떨어져 살아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고 성숙하며, 주어진 일에 책임감이 강하다. 그러므로 우리와 다르다는 편견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통학생'들이 학생들이 남한 학교에 잘 적응하여 긍정적인 자존감으로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잘 누리는 것, 또 그것을 바탕으로 어른이 되어서도 남한 사회에 건강한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는 것,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면서 더불어 행복을 찾는 모습이 바로 맑고 밝은 미래의 통일 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통일부 통일교육원(2015, 2016). 북한의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2015, 2016). 통일 문제의 이해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2014, 2015, 2016).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 중간보고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4). 통일 및 미래사회 대비 남북한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과정 방향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전국탈북학생 지도자 연수 교재

교육부 인천광역시교육청(2014). 탈북학생 멘토링 매뉴얼

최윤식(2013). 2030 대담한 미래. 지식노마드.

## <부록 1> 자존감과 통일 의식 설문지(한국어)

### 자존감과 통일 의식 설문지(사전, 사후)

본 설문지는 **자신, 통일, 북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참고로 알아보는 설문지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혹은 을 해주세요.

번호	영역	문항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잘 모름
0	자존 감	<input type="checkbox"/> 나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 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1	북한 이해	<input type="checkbox"/> 북한 친구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알고 있 다.				
2		<input type="checkbox"/> 북한의 음식이나 언어를 알고 있다.				
3		<input type="checkbox"/> 북한도 우리와 뿌리가 같은 민족이다.				
4		<input type="checkbox"/>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사람 을 돕고 싶다.				
5	통일 관심	<input type="checkbox"/> 남북한은 꼭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				
6		<input type="checkbox"/> 통일이 되면 북한을 꼭 한번 가고 싶다.				
7		<input type="checkbox"/> 국제 경기에 남북한이 한 팀으로 나갔으 면 좋을 것 같다.				
8		<input type="checkbox"/>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9	국가 에 대한 자 신 심	<input type="checkbox"/>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 태 극기를 게양한다.				
10		<input type="checkbox"/> 애국가를 부르거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 가슴이 뭉클하다.				
11		<input type="checkbox"/>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과 6.25전쟁 등 에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존경한다.				
12	나라 사 랑 (애 국 심)	<input type="checkbox"/> 독도가 자기 나라 땅이라 우기는 일본에 대해 자신 있게 우리나라 땅이라 주장할 수 있다.				
13		<input type="checkbox"/> 커서 어른이 되면 우리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몸과 마음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 키겠다.				

<부록 2> 자존감과 통일 의식 설문지(중국어)

关于自尊心与统一意识问卷调查(事前, 事后)

本问卷是为需要了解对于自己、统一、北韩的想法而进行的问卷调查表。  
请在适当的栏里划✓或○。

顺序	领域	提问内容	是	一般	不是	不太知道
0	自尊心	○ 我在得到着很多的爱。				
		○ 我努力就可以做好任何事情。				
		○ 我的优点很多。				
		○ 我是幸福的人。				
1	北韩理解	○ 我了解对北韩朋友们的学校生活。				
2		○ 我知道北韩的饮食和语言。				
3		○ 北韩是和我们同一民族的根。				
4		○ 我想帮助在经济上有困难的北韩人。				
5	关注统一	○ 南北韩必须要和平统一。				
6		○ 我想统一后去一次北韩。				
7		○ 我认为在国际竞赛场中南北韩成为一组参加较好。				
8		○ 如果南北统一, 我国将成为生活条件更好的国家。				
9	对国家的自豪感	○ 三一节、光复节、韩文节等国庆节里悬挂太极旗。				
10		○ 唱国歌,或对国旗宣誓的时候,心里很是激动澎湃。				
11		○ 很是尊敬为了国家在独立运动及6, 25战争中牺牲的人们。				
12	爱国(爱国心)	○ 可以对执着说独岛是自己领土的日本, 理直气壮地证明独岛是我国的领土。				
13		○ 长大成人后, 在我们国家面临困难时, 我会尽全力拥护我们国家。				